

# 사이버침해 사고 후폭풍… SKT-LG U+ 실적 희비 갈랐다

## 통신사 실적 온도차

SK텔레콤 비용부담에 실적 급락  
올해 AX 전략 집중해 반등 기회로  
LGU+ 가입자 늘어 수익성 개선  
AIDC·솔루션 기반 성장 동력 모색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의 여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실적 구도를 갈라놔다. SK텔레콤은 보안 사고 후폭풍으로 실적이 급격히 꺾인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입자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앞세워 성장 궤도를 이어가며 양사 간 온도 차를 분명히 드러냈다.

5일 두 회사의 실적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의 후폭풍을 겪은 SK텔레콤이 실적 부진에 빠진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입자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앞세워 통신 3사 간 실적 구도에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SK텔레콤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7조992억 원에 영업이익 1조73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7%, 41.1% 감소한 수치로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재무제표를 통해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당기순이익은 73.0% 급락한 3751억 원에 그쳤다. 실적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 비용과 보안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일회성 비용 그리고 인력 구조 개편에 따른 비용 지출이 꼽힌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같은 날 발표에서 연결 기준 매출 15조4517억 원에 영업이익 8921억 원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년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3.4%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성적을 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2024년 자회사 LG헬로비전의 자산손상차손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61.9%나 급증한 5092억 원을 기록해 수익성 면에서 SK텔레콤을 앞지르기까지 했다.

양사의 무선 사업 부문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됐다. SK텔레콤은 5G 가입자 1749만 명을 확보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으나 사고 직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요금 할인과 유심 무상 교체 등 마케팅 비용 부담이 실적을 짓눌렀다. 이와 대조적으로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부문(MNO)과 알뜰폰(MVNO)을 합친 전체 무선 가입회선이 3071만 개를 돌파하며 처음으로 3000만 시대를 열었다. 특히 MVNO 부문이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가입자 확대를 견인했다.

미래 먹거리인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두 회사 모두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기회였다. SK텔레콤은 가산 양주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 등에 힘입어 AI DC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34.9% 성장한 5199억 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자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성장과 신규 DBO(설계·구축·운영) 사업 진출로 AIDC 부문 매출이 18.4% 늘어난 4220억 원을 달성하며 기업인프라 사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SK텔레콤은 올해를 실적 회복의 해로 삼고 통신 전 영역에 AI를 도입하는

AX 전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킹 전 과정을 AI로 자동화하고 LTV 모델링을 고도화해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AWS와 협력 중인 울산 AI 데이터센터와 정부 소버린 AI 프로젝트 참여도 'AI 컴퍼니' 전환의 축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는 AIDC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기업 인프라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고성장을 이어온 AIDC 사업을 기반으로 DBO 영역까지 확장하며 수익성을 강화하고, 스마트 모빌리티·NW솔루션 등 B2B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해 지속 성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종석 SKT CFO는 "지난해는 고객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은 반성의 시간이 었다"며 "올해는 통신 전 영역에 AI를 도입해 재무 실적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수익성 중심의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구글 지도 반출 '중대기로'… 서류보완 촉각

지도 데이터, 경쟁력 가르는 핵심 자산  
국내 플랫폼 업계, 경쟁구도 급변 우려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과 관련한 보완서류를 제출할지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심사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제출 결과에 따라 서비스 확대 여부와 국내 플랫폼 업계 파장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5일 IT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추가 보완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 안보와 위치 정보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차세대 플랫폼 산업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구글은 현재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



구글 본사 전경. /구글

일부 기능을 제외한 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길찾기 정확도와 실시간 위치 기반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모빌리티 서비스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국내 플랫폼 업계는 지도 데이

터 해외 반출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 경쟁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자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빌리티와 위치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서비스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보 문제 역시 핵심 쟁점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군사 시설이나 국가 주요 기반 시설 위치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 기준이 엄격하다. 정부는 데이터 반출 시 보안 조치와 정보 보호 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완서류 제출 여부가 향후 심사 일정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경우 정부 심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출이 지연될 경우 승인 절차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빛나 기자 vitna@

## LG CNS, 퓨리오사AI와 NPU 기반 AI 협력

공공 AX 시장 공략

LG CNS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협력해 NPU(신경망처리장치) 기반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공공 AX 시장 공략에 나선다. 5일 밝혔다.

퓨리오사AI는 AI 연산에 특화된 NPU를 설계·개발하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다. 퓨리오사AI의 2세대 NPU 'RNGD'는 대규모 AI 서비스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는 동시에, GPU 대비 전력 소모와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LG AI연구원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LG CNS는 퓨리오사AI의 RNGD를 적용한 K-엑사원(EXAONE) 기반 AI 서비스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퓨리오사AI는 RNGD 공급과 함께 NPU 관련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AI 모델과 서비스, 인프라, AI 반도체로 구성된 소버린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공공 부문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 김태훈 부사장(오른쪽)과 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가 AI인프라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CNS

에 적합한 AX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력의 첫 단계로 LG CNS는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의 구동 인프라에 퓨리오사AI NPU를 적용해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에이전틱 AI는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고성능·고효율 인프라가 요구되며, 양사는 NPU 기반 인프라를 통해 전력 효율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 넥서쓰, AI 커뮤니티 접목 게임 공개

이용자 참여형 제작 구조 실험

넥서쓰는 5일 자체 AI 커뮤니티 플랫폼 '몰트북'을 활용한 신작 게임 2종을 공개하며 AI 기반 콘텐츠 제작 모델을 본격화한다.

몰트북은 이용자가 콘텐츠 제작과 아이디어 공유에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넥서쓰는 이를 게임 개발 과정과 연동해 이용자의 의견과 데이터를 반영하는 참여형 개발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게임은 AI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생성과 플레이 경험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용자 활동 데이터를 게임 시스템에 반영하는 구조를 통해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AI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을 게임 개발과 직접 연결하는 시도가 이용자 참여도를 높이고 장기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평가한다.

/최빛나 기자

## 네이버 D2SF AI스타트업 발굴 속도

네이버의 스타트업 투자 조직 D2SF는 AI 스타트업 반달AI와 시냅스AI에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반달AI는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미지와 영상 제작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기업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시냅스AI는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최빛나 기자

## 카카오엔터, 삼성 라이온즈 MD 만든다

스포츠 콘텐츠 사업 확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프로야구 구단 삼성 라이온즈와 MD 상품 협업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스포츠 콘텐츠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스포츠 팬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상품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다. 카카오엔터는 자사 IP 기획·제작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굿즈와 협업 상품

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팬 경험을 강화하는 콘텐츠형 MD 개발에 집중한다.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캐릭터,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브랜드 협업 전략을 추진한다.

스포츠 산업에서 팬덤 기반 소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참여 확대도 이어지는 추세다.

/최빛나 기자